

# “경기·생활형편 더 어려워진다”

■ 통계청 3월 소비자전망 조사



소비자 기대지수 99.7…1년만에 기준치 밑돌아

물가상승·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통계청이 7일 발표한 3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달에 비해 3.4포인트 내린 99.7로 집계돼 1년만에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해 3월 97.8에서 4월 100.1로 상승한 이후 올해 2월 (103.1)까지 기준치를 웃돌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 기대지수가 한

달 사이 100.1에서 92.1로, 생활형편 기대지수는 101.4에서 99.2로 각각 하락하면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107.7)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2월 81.8에서 3월 76.4로 낮아졌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88.0으로 떨어진 뒤 12월 85.1, 올해 1월 82.7, 2월 81.8, 3월 76.4 등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66.6으로 전

월(75.2)보다 8.6포인트 하락했고,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는 같은 기간 88.3에서 86.2로 2.1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는 각각 전 소득계층과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는 주택 및 상가(99.6→100.9)와 토지 및 임야(100.4→100.8)는 상승했지만 금융·자축(97.3→96.2), 주식 및 채권(80.0→75.0)은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수입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계수입 평가지수는 94.5로 전월(96.0)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줄 첫번째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68.9%)를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10.3%), 국내 소비(6.6%) 등도 변수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10대그룹 임원 연봉

일반 직원의 18배

삼성 20억·금호 4억

10대그룹의 작년 임원연봉이 이익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며 일반직원들과 임금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 계열사 중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69개사 등기임원 연봉은 평균 9억1천 6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2% 증평했다. 이는 작년 10대그룹 일반직원 평균 연봉 5천45만원의 18.16배에 달하는 것이다.

10대그룹 내에서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차이는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전체 등기 임원연봉이 평균 20억4천6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자동차 9억7천45만원, 금호아시아나 4억2천113만원, 롯데 2억9천307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임원연봉은 롯데그룹의 6.96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승승장구’

1800고지도 넘나

글로벌 증시 저력 탄탄 돌파 가능성에 무게

지난 3주간 연속 상승세를 지속, 200포인트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구가해 온 코스피지수가 7일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주변에서는 단숨에 1,8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 선험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07포인트(0.40%) 상승한 1,773.56에 마감됐다.

그러나 증시 일각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하더라도 지수 1,800선 언저리에서 한차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 악재들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1,800선을 넘어 최고 1,860선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증시가 최근 신용위기 우려에 대해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등 탄탄한 저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시황보고서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데다 미국 최대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인 MBIA에 대해 세계 굴지의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나 과급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등 최근 글로벌 증시의 투자심리가 상당히 견고해졌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은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지수 120일선이 지수 1,800선과 교차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저항에 따른 진통을 거칠 수 있지만 반등연장 국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1,830선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최근 가파른 ‘V’자 반등세를 이어온데다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수 1,800선 언저리에서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 1,800선에 접근할수록 현금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국세청, 1기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광주, 전남·북 979명 중점 관리

국세청은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광주, 전남·북지역 불성실 신고혐의자 979명을 포함해 전국 1만1천여명에 대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제 1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법인사업자 4만1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4만7천명을 합쳐 8만8천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법인 46만4천명, 개인 48만4천명 등 94만8천이다.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점업 사업자로 공동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

제활용 폐자원 취급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단체손님 음식점·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범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실적이 직전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로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中企 신용도 빨간불 켜지나

경기둔화·원자재값 상승 여파 2분기 위험지수 9P↑

자금 풍부해진 은행들은 “中企 대출 문턱 낮추겠다”

국내 경기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올 2·4분기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은행들은 최근 자금사정이 호전되면서 그동안 강화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성 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

는 47로 전분기 38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3년 3분기의 50 이후 약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플러스이면

신용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마이너스이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여

과로 국내 경기도 하방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다 고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도 상승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은행들이 늘었다”고 설명

했다.

가계의 신용위험 전망지수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전분기(13)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가계 등을 모두 합친 종합 신용위험 전망지수는 35로 2004년 1분기(38)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은행들은 중기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출 문턱은 낮추겠다는 입장은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태도는 전분기 -22에서 -16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가계 주택대출은 -6에서 0으로 증립수준을 나타냈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 대출태도 지수도 -3에서 3으로 완화됐다. /연합뉴스

재정부, 상속·증여세 완화 검토

“미실현 이익 과세 문제있다” 낮은 세율 개편 추진

기획재정부는 7일 세제개편시 상속·증여세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하고 있다.

또 인터넷뱅킹을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인 정보를 훔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킹 프로그램을 첨부해 이를 클릭한 사용자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해킹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는 동안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지시켜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들어 인터넷뱅킹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사고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례로 범인들은 해킹으로 알아낸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증과정에서 단순한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뒤

10대그룹 임원 연봉

일반 직원의 18배

삼성 20억·금호 4억

10대그룹의 작년 임원연봉이 이익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며 일반직원들과 임금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 계열사 중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69개사 등기임원 연봉은 평균 9억1천 6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2% 증평했다. 이는 작년 10대그룹 일반직원 평균 연봉 5천45만원의 18.16배에 달하는 것이다.

10대그룹 내에서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차이는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전체 등기 임원연봉이 평균 20억4천6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자동차 9억7천45만원, 금호아시아나 4억2천113만원, 롯데 2억9천307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임원연봉은 롯데그룹의 6.96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흔다코리아

광주 딜러 ‘제이원모터스’ 오픈

흔다코리아의 광주 지역 공식 딜러인 ‘제이원모터스’(대표 정원주)는 7일 광주시 북구 광주역 인근에 전시장을 오픈했다. [\(사진\)](#) 흔다 광주전시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천968㎡ 규모로, 승용차인 ‘아코드’와 SUV인 ‘CR-V’ 등을 주력 차종으로 판매한다.

전시장 내에 퀵서비스가 가능한 경정비 시설을 갖췄으며, 2층 고객전용 리운지에는 다양한 고객 편의시설이 있다.

흔다는 이번 광주전시장 오픈으로 본격적인 광주·전남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재 흔다는 서울 ‘두산모터스’, 부산 ‘D3모터스’ 등 전국 7개의 판매망을 통해 수입차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